안녕하세요? 저는 최승희데레사 수녀입니다.

나의 가족 배경

저는 서울에서 1 남 7 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형제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 온 덕분에 수도공동체 생활에서 도움 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기를 꿈꿔오다가 대학전공을 미술교육을 선택했고, 부전공으로 동양화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대학 선배들의 권유와 하느님 체험으로 4 학년 때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고, 졸업 후 소명여고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하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퇴근 후, 주말 등에 야학과 고아원 청소년들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예수회의 청년 CLC 활동을 통해 성소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소명여고에서 처음 사랑의 씨튼 수녀회 수녀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들을 통해 사랑과 겸손, 환대, 배려, 기쁨이 가득한 모습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1994 년 2 월에 사랑의 씨튼수녀회에 입회하게 되었고 2003 년에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사도직은 첫 파견으로 서울 씨튼 피정집으로 사도직을 시작해서 인천, 목포, 시카고에서 본당사도직을 했고, 수녀회 홈레이지담당과 성요셉여고에서 종교고사로서 근무했고, 현재는 씨튼가족 사무실에서 씨튼가족 대상으로 기도모임과 앞으로의 '영적동반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나의 삶

저는 현재는 적극적인 개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수도회 필요에 따라 '마더씨튼' 초상화와 배너, 싸인, 카드 등의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부르심은 말씀의 은사를 통해 또 다른 사도직 수행을 통해 은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예로 피정 프로그램 안에서 미술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하느님께 은총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의 달란트를 통해 사람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섭리 내지 부르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앞으로의 비전(하느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란?)

현재 저는 평신도분들 대상으로 영적 동반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8 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는 우리 창설자 성녀 엘리사벳 앤 씨튼과 성 빈첸시오와 성녀 루이즈 드 마리약의 영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신도분들에게 마더씨튼의 어머니적 영성안에서 활동과 관상의 조화를 이루며 이 시대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일, 사람들의 의식개혁에 주력할 수 있는 이 사도직에 사명감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고, 평신도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수도자들의 마음자리를 다시금 끌어올리는 것이 하느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일이라 믿고 그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Hello! I am Sr. Choi, Sung Hee. My baptismal name is Teresa.

My family background

I was born the fifth of one boy and seven girls in Seoul. My family community life with many siblings became a great help to my religious community life. Since childhood I dreamed of becoming a teacher, I chose art education as a major, and selected oriental painting as a minor.

During my fourth year of university, I experienced God and I was baptized by recommendation of my school seniors. After graduation, I worked as an art teacher at Somyong Girls' High School and learned to express love through the teachers and students. After work, or on weekends, I taught orphans and young people at night school, and I started to dream of a religious vocation through Jesuit Youth CLC activities. At Somyong School, I met our Sisters for the first time and I was inspired by their love, humility, hospitality, consideration for others, and joy. I entered the community in February of 1994 and made perpetual vows in 2003. First, I was missioned to Seoul Seton Retreat House and then, parishes (Incheon, Mokpo, and Chicago), worked as a website director of the Korean Province, and taught religion at St. Joseph School. Now I am working for Seton family members through providing prayer meetings and preparing for Seton Spiritual Companions.

My life as an artist

I don't actively work on my painting at this point; however,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community, I worked on the portrait of Mother Seton, banner, and cards. As I said before, now, I am sharing my gift of words and art with others in my current ministry. For example, I provide art programs to the retreatants so that they can look at their inner self deeply and find God's grace in themselves. I am so grateful and glad that I can be an assistant to make people find God's providence and His call for them through my talents.

My vision for future (what does God want me to do?)

For the laity, I am preparing a program for spiritual companions and it will begin 2017. I love the spirituality of St. Elizabeth Ann Seton, St. Vincent de Paul, and St. Louise de Marillac so much. Our founders' spirituality is very critical in this time. I am so confident on the importance of my ministry, and I am sure that I was called to help the laity live in the harmony between activity and contemplation in the spirit of mother, work for systemic change, and reform their consciousness as well. Besides that, through taking part in God's work, I wish I can also help the religious recover their exhausted minds and hearts so that they can renew their lives through my ministry. I think this is my vision and dream believing God wants me to do it.